

라오스 2차 현지 공동조사 결과 보고

□ 1일차: 8월 15일

1. 농업진흥은행(APB: Agricultural Promotion Bank)

○ APB는 재무부(Ministry of Finance) 소속의 국영기업으로 1993년 농가금융을 위해 설립하였으며, 2006년까지는 농가정책금융만을 담당하였으나 2007년 이후 일반금융 서비스를 시작하여 예금 업무 시작

○ 현재 농가정책금융은 5-10호의 농가그룹 연대보증으로 대출하며 주로 쌀, 채소, 옥수수 농가에 제공

○ 농가당 대출한도는 10백만 KIP이나 심사를 통해 확대 가능하며 이자율은 8%에서 최근 11%로 인상

○ 예금이자율이 10%이므로 예대마진은 1% 수준이나, 향후 정책금융을 하게 된다면 3-5% 예대마진으로 가능 예상

○ 2007년 이후 일반금융 서비스를 통한 자립화로 정책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정부지원이 없었음.

○ 현재 조직은 province 단위로 17개의 지점(branch)이 있으며, 77개 district에 지소(unit)를 보유하고 있고, 1개 지소(unit)에 7-12명의 직원이 근무

○ APB의 연간 농가정책금융 규모는 약 2,000억 KIP 수준임

2. 농가보조은행(Nayoby Bank: Subsidy Bank)

○ 빈곤층 농가금융을 전담하는 금융기관으로 APB의 상업화라는 정책변화와 함께 2007년 설치되었으며, 과거 상업화 이전 APB의 농가금융 기능을 대체하는 기관으로 설립됨

○ 농가금융만 담당하며 정부와 중앙은행의 자금을 통해 빈곤층 농가에 대한 농가금융사업 추진

○ 빈곤층 비율 높은 47개 district를 대상으로 시작했으며 현재 65개 district로 사업 확대 (10개 branch, 65 units, 600 stops)

○ 빈곤층 기준은 1인 소득 월 182,000KIP이며, 빈곤층 이하 주민이 전체 50% 미만이면 사업대상인 빈곤 지역(poor district)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임. 하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소득 외에도 교육, 의료, 교통 등의 인프라도 고려됨.

○ 이자율은 용자기간에 따라 다름. 1년 미만 단기자금은 5%, 1년이상 3년 미만 중기자금은 6%, 그리고 3년이상 장기자금은 7%로, 최근 각각 7%, 8%, 10%에서 인하되었음.

- 기간별 용자 현황을 보면 단기가 50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중기와 장기가 각각 20% 및 30%를 구성하고 있음.

- 장기자금은 주로 가축 구입이나 관개 등 기반 시설에 투자되고 있음.

○ local committee에서 개별농가를 평가하여 농가당 최대 3백만KIP까지 대출한도 확대 가능하며, 무담보 대출 원칙으로 7-15명의 농가그룹이 연대보증을 통해 용자를 공급

○ 주로 투입재 구입의 지원이 목적이며 이는 농가그룹 등을 통해 모니터링 가능(대출 30일 이후에 농가방문 조사를 통해 지원 목적에 맞는 용도로 활용되었는지 점검하여 부적절한 사용일 경우 회수 및 농가그룹 퇴출). 현재까지 모니터링 결과 약 70%는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.

○ 투입재를 직접 구매하여 농가에 공급하는 공동구매 방식은 농가의 불신 때문에 현재는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.

○ 현재까지 누적 사업규모는 1조 4000억 KIP으로 약 4,000 농가그룹 130,000가구를 지원하였음.

○ APB 지원과 중복은 불가능하며 이는 local committee를 통해 모니터링되고 있으며, local committee는 province와 district의 공무원과 village 단위에서 추천된 사람으로 구성됨.

○ 빈곤층은 village bank의 이용이 제한적이므로 Nayoby bank의 차별성이 있음.

○ 대출 단계에서 심사과정이나 모니터링 과정이 있기 때문에 default rate는 매우 낮음.

○ 미국 USDA의 Farm Service Agency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농업농촌 개발을 위해 중요한 기구인 것으로 판단됨.

□ 2일차: 8월 16일

Deposit-Taking Microfinance Institution for Development (DMID)

○ 지역조합 형태로서 독일의 DGRV 형태 조합인 Rural Development Cooperative Nazaythong에서 출발

○ 퇴직 중앙은행 직원이 농가의 금융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을 발견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,

초기 3개 시범사업 중 2개는 실패하고 현재 Nazaythong 협동조합만 운영되고 있음

○ 최초 18명의 농가회원, 2-3명 직원으로 중앙은행의 지원없이 시작하였으며, 사업 2-3개월 후 예금 증가하기 시작

○ 현재 회원증가속도가 자본증가속도보다 빨라 농가의 자금수요 증가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

○ 현재 조합회원을 위한 장제사업(fund for funeral ceremony)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예금(school saving) 사업도 진행하고 있음.

○ 회원 만족도 조사와 함께 비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.

○ 성별 회원구성을 보면 여자회원이 전체의 80%이며, 업종별로는 농업 60%, 가내수공업 15%, 가공, 도정, 유통 등 서비스 업종 35%로 구성

○ DMID는 제도권(formal) 금융으로서 비제도권(informal) 금융인 village saving과 지역내에서 공존하고 있지만, 수시 인출 가능한 예금(deposit)으로서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출자(share) 성격을 가지는 village saving과는 다름.

○ 2009년 이후 중앙은행 또는 ADB의 지원을 받아 중앙은행에 의해 설립된 유사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전국에 5개소 정도 운영 중이지만, 아직 이러한 협동조합의 협회는 구성되지 않고 있음.

○ 마을단위에서 지역리더의 심사를 거쳐 회원 가입 여부를 결정하며, 사업의 지역범위는 기본적으로 district 단위이며 인접한 district의 농가도 회원가입 가능함.

○ 대출한도는 평균 5백만kip-30천만kip 수준이며 신용도에 따라 서비스업종의 경우 100백만 kip까지 가능함

○ 대출이자율은 월 4%이며 예금 이자율은 연 18% 수준임.

○ 현재 지점은 없으며 약 19명의 직원으로 운영 중

○ 초기 DGRV의 지원은 교육, 컴퓨터, 오토바이, 홍보 브로셔 제작 등이 있었음.

○ 조합의 대표는 매 2년마다 조합원의 선거로 이루어짐.

○ 현재와 같이 예금을 포함한 영업을 위해 상공부(M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)와 중앙은행으로부터 3가지 인허가를 받고 있음.

○ 예금, 대출 등 금융업 외에 공동구매나 판매 등의 영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, 대신 종자 생산 그룹과 유사한 비즈니스센터를 통해 150ha, 260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등을 서비스하고 있음

□ 3일차: 8월 17일

○ 현지 연구진의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협의 진행

○ 주요 협의 내용

- 보고서 목차
- 라오스 농업 농촌 및 농가조직에 대한 현황 자료 추가 요청
- 공동조사 결과의 시사점: 협동조합 설치 방안, 향후 한국과의 협력 사업 방향

□ 2차조사의 시사점

○ 협동조합 추진을 위해 APB 또는 Nayoby Bank를 정책금융 담당 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. 협동조합의 운영을 위한 자금을 중앙은행을 통해 APB나 Nayoby Bank로 공급하여 지역조합으로 정책금융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. 단, 독립된 계정(account)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의 사용과 흐름이 모니터링될 수 있도록 하여야함.

○ APB 또는 Nayoby Bank가 자연스럽게 중앙회 기능을 하게 함으로써 하향식 협동조합 개발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고, 향후 지역조합이 중심이 된 중앙협의체 구성이 이루어지는 상향식으로 전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.

○ 제도권 금융으로서 협동조합의 영업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. 특히 향후 협동조합이 농가에 대한 정책금융 외에 공동판매 및 공동구매 등의 경제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이러한 영업을 할 수 있는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함.

○ DMID를 포함하여 성공가능성이 높은 협동조합 또는 지역에 대해 시범사업 형태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중앙은행을 통한 차관을 제공하여 APB 또는 Nayoby Bank를 중심으로 농가 정책금융 사업을 추진하는 형식의 협력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.